

2020년 7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확대로 부진 트럼프, “WHO 공식 탈퇴 했다” 발언 이후 낙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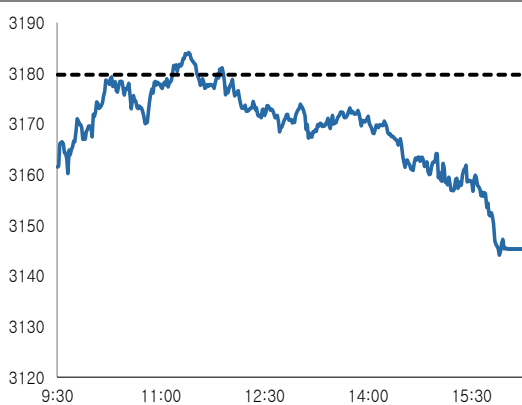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경기와 실적에 주목

미 증시는 코로나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부각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고용지표 개선에 기대 장중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음. 그렇지만 코로나 피해 업종 위주로 지속적인 매물이 출회 되고 금융주가 경기 회복 지연과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를 보이자 재차 낙폭 확대.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WHO 탈퇴 발표 이후 매물 출회가 더욱 확산. 대체로 실적 전망과 코로나 이슈가 주요 변수(다우 -1.51%, 나스닥 -0.86%, S&P500 -1.08%, 러셀 2000 -1.86%)

미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개별 종목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 먼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 만건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에 주목. 이날 WHO 는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높임. 한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기 회복 지연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회복이 정체 되었다”라며 주장.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고용시장 회복은 느리게 진행 될 것” 이라고 언급했으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피해는 너무 불확실하며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도 여전하다” 라고 주장. 대체로 미 연준 위원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 물론 클라리드 연준 부의장이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

한편, 미 증시의 특징은 JP 모건(-2.82%)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과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진한 결과를 예상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낙폭이 컸다는 점. 보잉(-4.81%) 등 항공기 관련 업종, 여행, 레저, 소매 판매 업종도 약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재 확산으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반면,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 자금 지급이 발표된 노바백스(+31.62%)와 아마존(-1.86%)의 프라이م 고객 정책에 대응을 언급한 월마트(+6.78%)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도 특징. 이렇듯 미 증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실적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64.17	-1.09	홍콩항셍		25,975.66	-1.38
KOSDAQ		759.16	-0.10	영국		6,189.90	-1.53
DOW		25,890.18	-1.51	독일		12,616.80	-0.92
NASDAQ		10,343.89	-0.86	프랑스		5,043.73	-0.74
S&P 500		3,145.32	-1.08	스페인		7,447.40	-1.44
상하이종합		3,345.34	+0.37	그리스		644.12	-1.78
일본		22,614.69	-0.44	이탈리아		20,012.68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급락 Vs. 월마트 급등

JP모건(-2.82%), BOA(-2.75%), 웰스파고(-4.00%), 씨티그룹(-3.17%)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과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보잉(-4.81%)은 2분기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지속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 재 확산과 호주 등 경제 섯다운 발표 등으로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부담이었다. 델타항공(-5.03%), 아메리칸 에어라인(-6.95%) 등 여타 항공주도 부진했다. 원리조트(-4.34%), MGM(-3.41%) 등 카지노, 리조트 업종과 익스피디아(-2.62%) 등 여행주, 카니발(-6.66%) 등 크루즈 업종도 코로나 여파로 부진했다.

테슬라(+1.33%)는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740달러)하며 한 때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약세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다. 햄버거 업체인 쉐켄(-6.55%)은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락했다. 맥도날드(-1.42%)도 부진했다. 반면, 월마트(+6.78%)는 아마존(-1.86%)의 프라임 고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 시스템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노바백스(+31.62%)는 정부가 백신 개발을 위해 16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다. 버텍스(+2.66%), 레지니온(+2.17%) 등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48%	대형 가치주 ETF(IVE)	-1.28%
에너지섹터 ETF(OIH)	-3.73%	중형 가치주 ETF(IWS)	-1.88%
소매업체 ETF(XRT)	-1.02%	소형 가치주 ETF(IWN)	-2.76%
금융섹터 ETF(XLF)	-2.05%	대형 성장주 ETF(VUG)	-0.88%
기술섹터 ETF(XLK)	-1.05%	중형 성장주 ETF(IWP)	-0.7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9%	소형 성장주 ETF(IWO)	-1.00%
인터넷업체 ETF(FDN)	-0.27%	배당주 ETF(DVY)	-1.64%
리츠업체 ETF(XLRE)	-1.5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69%
주택건설업체 ETF(XHB)	-0.9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25%
바이오섹터 ETF(IBB)	+0.44%	미국 국채 ETF(IEF)	+0.32%
헬스케어 ETF(XLV)	-0.87%	하이일드 ETF(JNK)	-0.55%
곡물 ETF(DBA)	+0.29%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1.24%	Long/short ETF(BTAL)	+2.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5.46	-3.18%	-2.06%	-21.53%
소재	367.35	-0.02%	+5.01%	-2.14%
산업재	579.97	-1.94%	+0.47%	-9.74%
경기소비재	1,089.49	-1.72%	+5.41%	+2.22%
필수소비재	613.74	+1.01%	+2.89%	-1.51%
헬스케어	1,186.07	-0.86%	+3.40%	-1.86%
금융	381.12	-2.07%	+0.41%	-13.83%
IT	1,864.78	-1.06%	+3.29%	+4.22%
커뮤니케이션	187.03	-0.37%	+5.35%	-0.13%
유틸리티	289.43	-0.35%	+1.27%	-8.79%
부동산	218.04	-1.60%	+2.37%	-6.9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0%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67%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6.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및 미국 코로나 확산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또한 씨티은행이 독일의 제조업 위축을 주장하고, EU 집행위의 성장을 하향 조정, 미 연준위원들도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발언들을 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이 결과 금 가격이 1,800 달러를 상회하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요인인 미국 코로나 재 확산 등은 전일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 선물 동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FBI 의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간섭 발표, 폼페이오의 중국의 톱톡 사용 금지 추진 등으로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변화 또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표 개선

5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499.6 만건)이나 예상(490 만건)을 상회한 539.7 만건을 기록했다. 물론 전년 동기(730 만건) 보다는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치가 증가한 점, 그리고 해고자수는 4 월(771 만건) 보다 크게 감소한 179.6 만건을 기록한 점, 이직률이 전월(1.4%) 보다 증가한 1.6%를 기록한 점 등은 고용불안 우려를 완화 시켰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약보합 마감

국제유가는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된 가운데 WHO 가 아직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겠다고 주장해 향후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특히 EU 집행 위원회의 유럽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연준위원들의 경기 불확실성 언급 등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 다만,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WTI 전망 가격을 전월 대비 6.9% 상향 된 37.55 달러로 발표한 점은 낙폭 제한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연준위원들이 경기 회복 지연을 주장하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했다. 다만, 파운드화가 EU 와 영국간 미래 관계 협상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 달러화 강세는 제한 되었다. 한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물론 호주달러 등 상품 환율 또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JOLTs)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과 연준위원들의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언급하자 장기를 위주로 하락했다. 여기에 EU 집행위원회가 EU 성장률 하향 조정과 호주의 섯다운, 트럼프의 WHO 탈퇴 통보 등도 하락 요인이었다. 다만, 단기물의 경우 고용지표 개선으로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한편,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5 배)과 비슷한 2.44 배, 간접입찰은 12 개월 평균(49.7%)를 상회한 54.3%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부각과 미국 코로나 확산 지속 여파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며 소폭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62	-0.02	+2.32	Dollar Index	96.987	+0.27	-0.41
브렌트유	43.08	-0.05	+4.39	EUR/USD	1.1274	-0.31	+0.36
금	1,809.90	+0.91	+1.61	USD/JPY	107.55	+0.19	-0.35
은	18.699	+0.63	+3.52	GBP/USD	1.2539	+0.38	+1.11
알루미늄	1,634.00	-0.03	+0.90	USD/CHF	0.9424	+0.02	-0.52
전기동	6,188.00	+0.97	+2.88	AUD/USD	0.6944	-0.42	+0.59
아연	2,070.00	+0.34	+1.10	USD/CAD	1.3606	+0.49	+0.22
옥수수	343.50	-0.87	+4.49	USD/BRL	5.3902	+0.65	-1.38
밀	495.25	+0.41	+1.80	USD/CNH	7.0224	+0.13	-0.67
대두	902.50	-0.41	+4.76	USD/KRW	1195.70	-0.01	-0.61
커피	100.30	+2.19	+0.20	USD/KRW NDF1M	1196.57	+0.38	-0.2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40	-3.62	-1.64	스페인	0.421	0.00	-4.30
한국	1.387	-2.30	+0.20	포르투갈	0.401	-0.90	-7.00
일본	0.046	+0.50	+1.80	그리스	1.105	-3.60	-9.50
독일	-0.429	+0.20	+2.50	이탈리아	1.202	-3.70	-5.40